1부 계시 —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성경론 5편 계시를 뒤집은 현대신학 · 이성·역사·체험이 말씀 자리에 앉다

프레임 3장 계시에 관한 현대의 견해 · 프레임 4장 계시와 이성 · 프레임 5장 계시와 역사 · 프레임 6장 계시와 인간의 주관성 · 프레임 7장 계시와 하나님 자신 · 워필드 2장 계시 개념과 계시 이론들 · 바빙크 6장 신앙(§130–146 세 가지 신학 방법, §150–153 성령의 증언 일부) · 신앙고백서 1.1(1.10 참조) · 신앙고백서 1장 1.1

> ❓ **요즘 신학자들은 성경을 다르게 본다는데, 도대체 뭐가 다른 거야?**

🧭 흐름 한눈에

현대신학과 정통을 가르는 것은 성경의 이 구절, 저 구절이 맞느냐 틀리냐가 아닙니다. 그보다 먼저, 누가 진리의 최종 판사석에 앉느냐입니다. 프레임은 이것을 '지적 자율성'이라 부르고, 그 뿌리를 에덴에서 찾습니다. 이 자율성은 근대 철학과 성경 비평학을 거쳐 공개 토론 한 번 없이 대학과 교회를 바꾸었습니다. 그 판사석에는 차례로 이성, 역사, 사람의 마음(감정·체험·양심)이 앉았습니다. 워필드는 이 시도들을 당대의 '계시 이론'으로, 바빙크는 '신학 방법'으로 검토했고, 각자 같은 판정을 내렸습니다. 20세기의 바르트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외쳤지만 성경을 말씀이 '되는' 것으로 두어 같은 문제를 남겼습니다. 개혁파의 답은 이렇습니다. 계시는 사람 경험의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적 말씀이고, 성경은 그 최종 형태이며, 성령은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비추십니다.

📜 절별 정리

(★ = 둘 이상의 책이 함께 드는 구절. 이 교리의 기둥이라는 표시)

📜 1. 갈림길은 하나: 누가 최종 판사인가 (프레임 3장 · 워필드 2장)

먼저 '요즘 신학'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정리합니다. 프레임은 '현대신학'과 '자유주의 신학'을 거의 같은 뜻으로 씁니다. 둘 다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신학을 가리킵니다. 그는 현대와 정통을 가르는 기준을 하나로 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지 않고 내 이성을 진리의 최종 판사로 삼느냐는 것입니다. 이 태도는 근대에 처음 생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대신 스스로 판단하기로 한 에덴의 선택(창세기 3장)이 생각의 영역에서 드러난 것입니다. 로마서 1장이 말하듯 사람은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 억누릅니다. 그러니 자율성은 무지가 아니라 거부입니다. 워필드도 1909년의 사전 항목에서 같은 지점을 짚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어떤 식으로든 계시에서 온다는 데는 극단적 자유주의자도 동의하므로, 진짜 쟁점은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직접 말씀하셨느냐(특별계시)라는 것입니다.

1. 현대신학 ≈ 성경의 절대 권위를 부정하는 신학
2. 갈림길은 하나: 누가 최종 판사인가
3. 지적 자율성의 뿌리는 창세기 3장
4. 자율성은 무지가 아니라 알면서 하는 거부
5. 워필드: 쟁점은 특별계시, 하나님이 말씀하셨나

> **창세기 3장 (장 전체)**
>
> 하나님의 말씀 대신 스스로 판단하기로 한 첫 사건. 지적 자율성의 원형(프레임)
>
> **창세기 3장** 1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2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4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5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6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

> **로마서 1:18 ↗**

> 사람은 진리를 알면서 억누른다. 자율성은 거부다(프레임). 바빙크도 불신이 마음의 문제라는 근거로 같은 구절을 든다

📜 2. 자율성의 계보: 철학에서 강단까지 (프레임 3장 · 워필드 2장)

프레임은 자율적 사고가 17세기에 큰 전환을 맞았다고 봅니다. 한 철학자가 확실성을 얻으려고 모든 것을 의심하고 '생각하는 나'에서 출발한 뒤로, 지적 자율성은 철학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스피노자는 1670년 『신학정치론』에서 이것을 성경에 직접 적용했습니다. 성경을 다른 고대 문헌처럼 이성의 판단 아래 두자고 했고, 예언과 기적의 가능성, 모세오경을 모세가 썼다는 전통을 부정했습니다. 워필드는 그 뒤의 두 단계를 짚습니다. 18세기 이신론은 하나님의 초월만 보아 특별계시가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19세기에는 반대로 하나님의 내재만 보아 “모든 생각이 계시”라고 했지만, 밖에서 새 지식이 주어지는 계시는 여전히 부정했습니다. 프레임이 가장 놀라워하는 것은 이 전환이 공개 토론 없이 일어났다는 점입니다. 대학 교수진이 바뀌었고, 그들에게 배운 목사들을 통해 교회로 번졌습니다. 그 결과 1924년 미국장로교 목사 1,274명이 '오번 선언'에 서명해 성경의 무오성·동정녀 탄생·대속·부활·기적을 정통의 시금석으로 삼기를 거부했습니다.

1. 17세기, 자율적 이성이 철학의 표준이 됨
2. 스피노자(1670): 성경을 이성의 심판대에
3. 18세기 이신론: 초월만 보고 계시를 밀어냄
4. 19세기: 내재만 보고 모든 생각을 계시로
5. 토론 없이 대학에서 강단으로 번졌다

> **창세기 25:29-34 (프레임은 장절 없이 암시)**
>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판 에서. 눈앞의 '자율적 이성'을 위해 하나님 말씀이라는 상속을 버린 교회를 빗댄다
>
> **창세기 25:29-34** [29]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30]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33]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34]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자율적 이성이라는 팥죽을 얻기 위해서 대부분의 교회가 하나님의 인격적 말씀이라는 장자권을 포기했다." — 프레임

📜 3. 첫째 자리 바꿈: 이성이 판사석에 (프레임 4장 · 바빙크 6장 역사적-변증적 방법)

프레임은 먼저 오해를 막습니다. 그가 반대하는 것은 이성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독립해 성경까지 심판하려는 '자율적 이성'입니다. 성경은 이유를 붙인 명령과 "그러므로"로 이어지는 논증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은 "서로 변론하자"고 부르십니다. 그러나 달란트를 땅에 묻은 종의 그럴듯한 변명처럼 추론은 틀릴 수 있고 죄에 물듭니다. 형식이 완벽한 논증도 전제가 거짓이면 헛것입니다. 그래서 프레임은 "이성이 계시를 평가해야 한다"는 근대 철학자들의 주장에 뜻밖에 동의합니다. 다만 제대로 작동하는 이성이라면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고려할 것이고, 결국 그 말씀을 확실히 믿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바빙크는 지성으로 확신을 세우려 한 '역사적-변증적 방법'을 검토합니다. 변증은 신자의 의무이지만 신앙을 뒤따르는 일입니다. 끝나지 않는 역사 검증 위에 확신을 세우면 보통 신자의 구원이 학자들의 결론에 매달리게 되고, 교리를 철학 사상의 상징으로 바꾸면 신학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인간학이 됩니다.

1. 프레임은 이성이 아니라 '자율적 이성'을 반대
2. 성경은 이유와 "그러므로"로 가득하다
3. 그럴듯한 추론도 죄에 물들 수 있다
4. 바른 이성은 말씀하시는 분을 고려해 믿는다
5. 바빙크: 변증은 의무, 그러나 신앙을 뒤따른다

하나님이 “서로 변론하자”며 이성적 대화로 부르신다(프레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 같이 희게 되리라

출애굽기 20:11

안식일 명령에 '창조'라는 이유가 붙는다. 하나님은 이유를 주신다(프레임)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신명기 5:15

같은 명령에 '출애굽'이라는 또 다른 이유가 붙는다(프레임)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로마서 12:1 ★

프레임: “그러므로”, 곧 논증에서 순종이 나온다. 바빙크: '합당한(이성적) 예배', 신앙과 이성은 충돌하지 않는다

마태복음 25:24-26

종의 그럴듯한 변명을 예수님이 악하다 하신다. 이성은 죄에 물들 수 있다(프레임)

24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헤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25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26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헤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고린도전서 1:20

>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베드로전서 3:15

소망의 이유를 대답하라. 변증의 정당성. 그러나 신앙 다음에 오는 일(바빙크)

>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영원이 거미줄에 매달려 있을 수는 없다.” — 바빙크

📜 4. 둘째 자리 바꿈: 역사가 판사석에 (프레임 5장 · 워필드 2장)

프레임은 성경 신앙이 창조·타락·구속이라는 실제 사건 위에 서 있다는 점을 먼저 인정합니다. 붓다가 없어도 참인 불교의 진리와 달리, 복음은 일어난 일의 소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계시는 말이나 글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사건”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프레임은 성경의 패턴이 '말씀–사건–말씀'이라고 답합니다. 선지자가 미리 말하고, 사건이 일어나고, 말씀이 다시 그 사건을 풀어 줍니다. 그 자리에 없던 우리에게는 사도들의 증언으로 전해집니다. 사건만 앞세우는 진짜 동기는 성경의 역사를 마음대로 해석할 권리, 곧 자율성입니다. 바르트는 구속 사건을 세속 역사가의 비판에서 지키려고 역사를 실증 역사와 '구속의 역사'로 나눴습니다. 프레임은 이 구분이 오히려 실제 시공간의 역사를 세속에 넘겨준 결과라고 봅니다(바르트가 부활이 실제 역사에서 일어났다고 믿었다는 점은 프레임도 인정합니다). 워필드는 같은 흐름을 당대의 '구속 사건론'에서 보았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의 계시조차 말로 된 설명이 앞서고 함께하고 뒤따르지 않았다면 바로 알아보기 어려웠을 것이라고까지 말합니다.

1. 성경 신앙은 실제 사건 위에 선다
2. 사건은 말씀으로 예고·전달·해석된다

4. 바르트의 '두 역사'는 성경에 없는 구분

5. 워필드: 그리스도 사건도 말씀 없이는 안 보인다

시편 145:4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대대로 '말로' 전한다. 행위도 계시하지만 말로 전해진다(프레임)

>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요한일서 4:8-10

아들을 보내심이 사랑의 정의. 하나님의 행위가 계시함을 프레임도 인정한다

> 8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 9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10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고린도전서 15:1-2 ★

사도가 전한 복음을 붙드는 것이 구원의 길. 사건은 사도의 말을 통해 온다(프레임). 바빙크도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 증언을 “하나님은 신실한 증인을 통해 말씀하신다”의 근거로 든다

고린도전서 15:11 ★

사도들이 함께 전했고 성도가 믿었다. 증언이 믿음의 통로(프레임·바빙크)

베드로전서 1:12

천사도 살펴보기 원하는 신비. 사람은 구속 사건을 스스로 해석하지 못한다(워필드)

>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 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누가복음 17:20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게 오지 않는다. 관찰만으로는 부족하다(워필드)

디모데후서 3:15 (워필드는 장절 없이 암시)

'구원에 이르는 지혜'. “계시는 구원용이지 가르침용이 아니다”는 잘못된 대립이다

> **디모데후서 3:15**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하나를 다른 것에 우선시하지 않는다.” — 프레임 (행위와 말씀 이야기)

📜 5. 셋째 자리 바꿈: 마음과 체험이 판사석에 (프레임 6장 · 바빙크 6장 종교적-경험적 방법 · 워필드 2장)

'현대신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슐라이어마허(1768–1834)는 이성 중심의 종교관이 종교의 고유함을 놓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종교의 뿌리를 '절대의존감정'에 두었습니다. 이 구도에서는 감정이 먼저이고 성경과 교리는 그 감정을 말로 옮긴 이차 표현이 됩니다. 결국 계시는 하나님이 주신 객관적 진리가 아니라 그 진리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됩니다. 프레임은 감정과 이성이 칼로 자르듯 나뉘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슐라이어마허의 방대한 저작도 감정을 이성으로 분석한 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쟁점은 이성이냐 감정이냐가 아니라 자율이냐 순종이냐입니다. 합리주의·역사주의·주관주의는 같은 자율성의 세 얼굴입니다. 바빙크는 이 길을 '종교적-경험적 방법'이라 부릅니다. 그는 중생이 꼭 필요하다는 진리는 인정하지만, 경험에서 신앙의 내용을 끌어내는 것은 객관적 진리와 주관적 확신을 섞는 일이라고 판정합니다. 경험은 말씀이 일으키고, 신앙을 뒤따르며, 성경으로 바로잡힙니다. 워필드도 같은 선을 긋습니다. '신적 진리에 대한 직관'도 직관이 사람의 방식인 이상 계시가 아니며, 성경의 계시 전달자들은 내용을 지어내지 않고 받았다는 것입니다.

1. 슐라이어마허: 종교의 뿌리는 절대의존감정
2. 감정이 먼저, 성경은 이차 표현이 된다

4. 바빙크: 경험은 말씀이 낳고 신앙을 뒤따른다

5. 워필드: 계시 전달자는 지어내지 않고 받았다

> **이사야 8:20**
> 경험이 아니라 '율법과 증거의 말씀'이 기준이다. 주관주의에 대한 결정적 답(바빙크)
>
>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 **요한복음 3:3**
>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거듭나야 한다. 경험 신학에서 바빙크가 인정한 진리
>
>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 **데살로니가전서 1:5**
> 복음이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으로 이르렀다. 객관적 말씀과 성령의 역사는 떨어지지 않는다(프레임)
>
>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인간은 그런 계시를 단순하게 수용할 뿐이지 노력으로 획득하지 않는다."
— 워필드

📜 6. 양심·위로·공동체가 판사석에 (바빙크 6장 윤리적-심리학적 방법 · 프레임 4장)

바빙크가 검토한 셋째 방법은 '윤리적-심리학적 방법'입니다. 기독교가 양심의 도덕적 필요를 채워 주므로 증명 없이도 참이라는 입장을 주장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에

가치 판단으로 보는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으로 이어졌습니다. 바빙크는 위로를 주지 못하는 종교는 종교라 불릴 자격이 없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위로가 참됨을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종교가 어느 정도 위로를 주고, 거짓도 가치 있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가치 판단은 사실 판단 위에 서야 합니다. 또 사람은 계시 밖에서는 자기의 참된 필요도 모르므로, 진리를 필요에 맞춰 재단하면 강단은 위로 대신 아첨을 하게 됩니다. 프레임은 20세기 이후의 '대체물' 목록을 덧붙입니다. 인격적 만남, 자기 이해, 공동체, 억압받는 이들의 경험, 열린 미래에 대한 희망입니다. 그는 이것들이 이성의 자율성은 그대로 둔 채 이름만 바꾼 것이라서 아무것도 고치지 못한다고 봅니다.

1. 양심의 필요를 채우니 참이라는 논리
2. 위로는 종교의 면류관, 그러나 증명은 아님
3. 가치 판단은 사실 판단 위에 서야 한다
4. 필요에 맞춘 진리는 강단을 아첨으로 만든다
5. 프레임: 만남·공동체·희망도 이름만 바꾼 자율

> **요한복음 7:17**
> 도덕적 확신의 출발점으로 이 방법이 내세운 구절. 바빙크는 그 안의 진리를 인정하되, 이것이 종교적 확신을 대신할 수 없다고 본다
>
>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 **이사야 40:2 (바빙크는 장절 없이 암시)**
>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 마음에 호소하는 설교가 아첨으로 미끄러질 위험을 꼬집는 배경
>
> **이사야 40:2**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20세기에 바르트(1886–1968)는 자유주의에 반발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외쳤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시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완전한 의미의 계시는 그리스도뿐입니다. 성경과 설교는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성령이 쓰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말씀을 소유하지 못하며, 성경 본문은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인간 문서라고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런 본문도 말씀이 될 수 있으니 오류 여부는 신앙에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같은 시기 “하나님은 정보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다”는 구호도 유행했습니다. 프레임은 사람도 자기 이야기를 들려주며 자신을 드러낸다는 점, 신약의 '계시' 용례 대부분이 내용 전달이라는 점으로 답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언약궤에 두게 하시고, 정해진 때 읽게 하시며, 세대를 넘어 보존하게 하셨습니다. 이 객관성이 오히려 계시를 사람의 조작에서 지킵니다. 그리스도가 말씀이시라는 바르트의 확증은 옳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이 자기 말보다 더 권위 있다는 것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1. 바르트: 성경은 말씀이 '될' 때 말씀
2. 본문의 오류는 신앙에 상관없다고 봄
3. 정보와 자기 드러냄은 맞서지 않는다
4. 객관적 말씀이 계시를 조작에서 지킨다
5. 그리스도는 자기 말보다 높지 않으시다

> **신명기 31:10-13**
> 율법을 정해진 때마다 백성 앞에서 읽게 하셨다. 계시는 순간의 사건이 아니라 보존되는 말씀 (프레임)
>
> 10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칠 년 끝 해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 11 온 이스라엘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12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네 성읍
>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13 또 너희가 요단을
>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 듣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1]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2]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3]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4]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5]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6]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

유다서 1:3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소유하고 지켜야 할 내용(프레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갈라디아서 1:12

바울이 받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온 메시지. 계시는 내용을 전한다(프레임)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요한복음 1:1

그리스도를 '말씀'이라 부르는 가장 분명한 구절. 바르트의 확증은 성경적이다(프레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8:37

“내 음성을 듣느니라”. 말씀이신 분은 침묵하지 않고 말로 증언하셨다(프레임)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요한복음 6:68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은 떨어지지 않는다(프레임)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인격적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불순종하는 것이다.” — 프레임

📜 8. 개혁파의 답: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프레임 6장 · 7장 · 워필드 2장 · 바빙크 6장 · 신앙고백서 1.1)

개혁파의 답은 이성·역사·감정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프레임은 현대 견해들이 긍정한 것은 대체로 옳고, 그것들을 하나님 말씀에서 독립된 판사로 세운 것이 잘못이라고 정리합니다. 그는 계시를 셋으로 나눕니다. 내가 알든 모르든 거기 있는 객관적 계시, 불신앙으로 받아 억누르는 계시, 믿음으로 받는 계시입니다. 사람이 받아들여야만 계시라고 보는 '주관적 선회'는 거부하는 사람을 '못 받은 사람'으로 만들어 믿어야 할 의무를 지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이 핑계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개혁신학이 말하는 주관적 요소는 성령이 이미 주신 말씀을 마음에 비추시는 조명입니다. 워필드는 성경이 계시를 기록한 문서 그 이상, 그 자체가 하나님의 계시라고 말합니다. 바빙크는 “왜 믿느냐”의 가장 깊은 답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이고, 그 확신은 성령의 내적 증언에서 오며, 그래서 성경은 자증적이라고 말합니다. 신앙고백서 1.1은 현대신학이 갈라놓은 것들을 처음부터 한데 묶어 둡니다. “주께서는 여러 때에 여러 방식으로 자신을 계시하시고, 자신의 교회에 그 뜻을 선포하기를 기뻐하셨다.” 그리고 “진리를 더 잘 보존하고 전파하기 위하여” 그것을 “온전히 기록되게 하셨다.”

2. 계시는 객관 / 불신앙의 주관 / 믿음의 주관
3. 객관적 계시가 믿어야 할 의무를 만든다
4. 성령의 조명은 새 계시가 아닌 말씀을 비춤
5. 성경은 계시의 기록 그 이상, 계시 자체다

로마서 1:18 ★

모두가 알면서 억누른다. 거부자는 '못 받은 자'가 아니다(프레임 6장, 바빙크 6장)

로마서 1:20

핑계할 수 없다. 객관적 계시가 믿어야 할 의무를 만든다(프레임)

>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마태복음 11:27 ★

아들이 원하는 자에게 아버지를 알게 하신다. 프레임은 믿음으로 받는 계시이자 내용을 주는 계시의 근거로(6·7장), 바빙크는 지식이 선물이라는 근거로 든다

고린도전서 2:14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성령이 내적 원천이시다(바빙크)

>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고린도전서 12:3

성령 없이는 “예수는 주”라 고백할 수 없다(바빙크)

>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2:13

>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
> **히브리서 1:1 ★**
> 워필드는 계시의 점진성을 이 구절의 표현으로 말하고(장절 없이 암시), 프레임은 히브리서 1:1-3을 아들 안의 말씀의 근거로 든다. 신앙고백서 1.1의 “여러 때에 여러 방식으로”도 이 구절의 표현이다

“성경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최종적 계시이다.” — 워필드

🗣️ 다섯 목소리

책	이 편의 질문에 대한 답 (한두 문장)	특별히 강조하는 것	비워 둔 것
프레임 『성경론』 2부	현대신학은 이성·역사·감정을 차례로 하나님 말씀 위의 판사석에 앉혔다. 셋은 자율성이라는 한 뿌리의 세 얼굴이다.	'지적 자율성'이라는 단일 기준, 계시의 세 종류, 바르트 비판	성령의 증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하는지는 뒤(41–44장)로 미룸. 17세기 개혁파 고백과의 연결은 거의 없음
워필드 2장	당대 이론들은 계시를 종교의식의 성장, 구속 사건, 내면 체험으로 줄였다. 성경적 계시의 정점은 하나님이 직접 주신 객관적 말씀이다.	원천과 방식이 모두 초자연이어야 한다는 기준, 전달자의 수용성, 성경 자체가 최종 계시	1909년 글이라 바르트가 없음 (프레임이 메운다). 이 장에는 성경 구절 근거가 적음

책	이 편의 질문에 대한 답 (한두 문장)	특별히 강조하는 것	비워 둔 것
	진리의 조각은 있지만 신앙의 근거는 아니다. 근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와 성령의 증언이다.	비판, “경험은 신앙을 뒤따른다”, 가치는 참됨이 아님	다루지 않음 (프레임이 메운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1	현대신학 이전(1647)의 문서라 이 논쟁을 직접 다루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고 뜻을 선포하셨다”, 그리고 “온전히 기록되게 하셨다”고 고백해 행위와 말씀, 계시와 기록을 처음부터 묶는다.	계시와 기록의 연속성, 보존과 전파를 위한 기록	근대 이성주의와의 대결 — 프레임·바빙크가 메운다
오웬 『성경의 신적 기원과 자증성에 관한 논고』	이 주제를 다루지 않음 — 1659년 책으로 스피노자의 성경 비평서(1670)보다 앞선다. 프레임과 바빙크가 메운다.	(뒤 편 자증성·성령의 내적 증거에서 주인공)	현대신학 전체

- 세 책은 서로 다른 시대의 '대체물'을 다른 이름으로 검토했지만 판정은 같습니다. 이성(프레임 4장, 바빙크의 역사적-변증적 방법), 역사(프레임 5장, 워필드의 구속 사건론), 마음(프레임 6장, 바빙크의 경험적·윤리적 방법, 워필드의 내면 이론) 모두 판사석에 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 강조점은 다릅니다. 프레임은 '자율성' 하나로 날카롭게 자르고, 워필드는 계시가 '어떻게' 왔는지(방식)까지 초자연적이어야 한다고 기준을 세우며, 바빙크는 상대에게서 옳은 것을 먼저 인정한 뒤 확신의 근거(성령)로 나아갑니다.
- 빈자리는 서로 메웁니다. 워필드와 바빙크에게 없는 바르트는 프레임이

- 신앙고백서 1.10은 최고 재판관이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 외에는 있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 편 전체는 결국 그 판사석을 둘러싼 다툼이었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오해와 반론

📖 용어

계시
하나님이 자신과 자신의 뜻을 사람에게 알려 주시는 일.

특별계시
창조와 섭리로 모든 사람에게 주신 일반계시와 달리,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 말씀과 사건으로 특별히 주신 계시이며 지금은 성경에 담겨 있다.

지적 자율성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지 않고 내 이성(이나 감정·경험)을 진리의 최종 기준으로 삼는 태도.

현대신학(자유주의 신학)
프레임의 용법에서,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인간의 이성·역사·경험을 최종 기준으로 삼는 신학.

절대의존감정
무언가에 전적으로 기대어 있다는 마음 깊은 곳의 직관으로, 슐라이어마허가 종교의 출발점으로 삼은 것.

조명
성령이 이미 주어진 말씀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깨닫고 믿게 하시는 일(새 진리를 주시는 것이 아니다).

영감

무오성
성경이 그것이 말하는 모든 것에서 틀림이 없다는 교리.

자증성
성경이 교회나 사람의 보증에 기대지 않고, 성령의 사역으로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드러낸다는 성질.

성령의 내적 증거
성령께서 말씀으로, 말씀과 함께 신자의 마음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확신을 주시는 일(새 계시를 주시는 것이 아니다).

💬 청년의 삶으로

✅ 이 편의 결론

- 현대신학과 정통을 가르는 것은 세부 결론이 아니라, 진리의 최종 판사석에 누가 앉느냐다.
- 이성·역사·감정·양심이 차례로 그 자리에 앉았지만 모두 같은 자율성의 얼굴이며, 프레임·워필드·바빙크는 각자의 시대에 같은 판정을 내렸다.
- 바르트는 말씀을 되살리려 했으나 성경을 말씀이 '되는' 것으로 두어 같은 문제를 남겼다.
- 개혁파의 답: 계시는 사람 경험의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적 말씀이고, 성경은 그 최종 형태이며, 성령은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비추신다.

📚 이 편의 책별 정리 노트

- 프레임 · 계시에 관한 현대의 견해
- 프레임 · 계시와 이성
- 프레임 · 계시의 역사

- 프레임 · 계시와 하나님 자신
- 워필드 · 제2장 계시 개념과 계시 이론들
- 바빙크 · 6장 신앙

빛다방 학습 노트 · 존 프레임 『성경론』(P&R Korea·CLC), B. B. 워필드 『성경의 영감과 권위』(CLC), 헤르만 바빙크 『개혁파 교의학』(새물결플러스)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번역서 원문 미전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1647)와 존 오웬의 논고(1659)는 공유 저작물로 우리 번역입니다.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 기준입니다. youtube.com/@빛다방